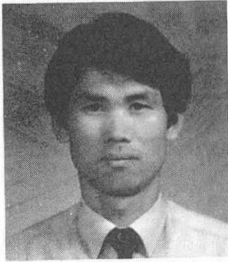


농장 - 지역중심 방역체계 확립해야



한 병우

(제일종축농장 수의사)

국내 오제스키병 첫 발생 보고가 공식 발표된지 4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면서 양돈가와 정부간에는 보상문제 등으로 대책 실시가 지연되는가 하면, 혈액검사를 위해 현지 출장중인 일선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수난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했던 곳은 양돈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양돈가 단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나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소견을 피력코져 한다.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했던 시점에서만 해도 오제스키병이 농장내 유입되면 금방 전 돈군에 이환되어 사료섭취가 떨어지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폐사가 다발하는가 하면 모돈에서는 유산, 사산 등으로 도저히 양돈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것 같은 인상이었다. 본인 자신도 이러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항체 양성돈군으로 판정된 농장에서도 얼마동안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그런대로 양돈장을 꾸려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양돈장에 오제스키병 양성돈이 있다고 모돈을 비육돈 취급하여 보상해 주며 강제 도태시키려니 자연히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때 양돈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양돈가 단체가 적극 나서 해결점을 찾아 주었어야 했으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양돈가 단체가 확신을 가지고 박멸해야 한다는 신념과 또 오제스키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흔한 기금이라도 동원하여 보상해 줌은 물론 전국적인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양축가의 환영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의 박멸계획 즉, 양성돈군 완전도태/돈군 재편성의 대책 실시안이 검사후 양성돈 도태로의 변화와 진단 키트 보급 확대 등의 오류를 범하면서도 근절 대책의 근간을 유지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일선 양돈장 수의사로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이제는 관주도 행정에서 탈피하여 양돈가 단체 주도 하에서 양돈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시점인것 같다.

오제스키병의 박멸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 다음 어느 한 농가·농장에서 근절되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될것 같다. 물론 오제스키병의 전파가 아주 빠른 질병은 아니다. 국내 항체 양성돈 발생 상황을 보더라도 1,500두 규모의 양돈장에서 양성돈 23두 발생이라든가, 3,300두 규모 농장에서 양성돈 48두 검출(대한수의사회지 1990. 5월호) 등 양성돈 발현 빈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질병 유입 초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초기에 검사하여 양성돈을 색출 도태시키면 근절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제스키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할 수도 있다. 이미 발생한 경험이 있는 양돈장이나, 인접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증상과 달리 생산성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 사이에 농장에 더욱 전파되어 근절책을 미궁에 빠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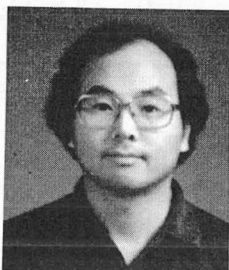
따라서 증상에 따른 검사보다 일정기간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내 발생 보고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감염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양돈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위해 현재와 같은 광역의 방역

체계보다 각 농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으로 소 지역 단위의 박멸대책을 실시함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조해 주고 지역단위로 실시한 결과를 수집하여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수집하여 실시함으로써 대처함이 바람직할 것 같다.*

양돈농가 검사 기피, 감염원 이동 대책 세워야



하 민 호

(충남 합덕가축병원장)

저는 박사학위 출신도 아니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일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양돈농가들을 직접 지도해 본 결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대략적인 것은 어렵듯이 알고 있으나, 감각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직접 지역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등을 시작으로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 나름대로 적어본다.

현재 당진군 합덕근교 양돈농가들은 돼지오제스키병의 실체에 대해서 소상이 아는 사람이 없다. 또 관계기관이나 연구소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은 것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테 듣거나 잡지 등을 통해 잠깐 읽어본 정도라는 점이다.

특히 가축위생시험소나 군의 수의사들에게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문의가 가끔 들어오거나, 진단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응하기도 한다. 소규모와 전업이하를 찾아다니며 교육하거나 항체검사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양돈농가들은 민권을 내세우며 일부에서 검사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들이 항체검사를 할 때 가격이 비싸 두당 몇 천원이 소요되는 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서산군에 발생된 돼지오제스키병은 품문에 듣기에 발생된 경력이 있는 경기도 모 농장에서 주인이 알고 있으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잠재되었던 병원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원인을 볼때 양돈농가 스스로 자중하여 종돈구입요령을 숙지하고, 지역에서 구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는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 및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용 영화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